

제3회 100인 기부캠페인 발간식 인사말
2005-5-6 3:00 컨벤션홀에서

No. /

여러분 임팩트 제1회 5주년 리액션입니다.
5주간의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사회에 따뜻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여러움을 주고 있는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생의 자선일이 없는 하루를 사는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은
올해로 3주차 <100인 기부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발기인을 내딛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시작한 한국여성재단의
100인 기부캠페인에는 이제 5000명이 참여하였고
올해의 참여자들이 5000명이 될 것입니다.

Date

앞으로 8000여 명의 기부자들의 주물거림이
우리사회에 이룩된 기부문화의 주물거림을 지어 나아가는 데
역조력이 될 것입니다.

기부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기부함으로써만 이루어
나를 사회에서 기부를 전하는 데 조이게 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희생을 베풀기 위한 나눔의 기쁨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주는
<100인 릴레이 기부>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내를 함께 하여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사회에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으로 감동받고 있습니다.

Date

유럽의 기부 캠페인은
가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뜻 행복한 가족 만들기
가족 전체를 위한 캠페인을 위해 참여
<행복한 가족 만들기>을 조성 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가족 문제 조성 Program
행복한 가족, 장애인 가족, 노인 가족, 국제 결혼 가족, 소년 소녀 가족 등
소외된 가족에 대한 가족 복지 서비스 Program을 지원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후쿠에 대해 이해하고 소외된 가족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편견과 병대를 느끼지 않게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의 후대를 마련 된 것은
리행 기쁘.

회복을 이루는 것은
 자존심과 고령 사회 문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새롭게 조명해가야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키고
 우리들의 삶이란 경제발전이
 환경을 대이행 희생시켜주지 않더라도
 이제는 가족도 희생시킬 수 없게
 최후에 한이 되려고 노력한다.

우리 사회의 주된 문화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의 조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걷어내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월 16일(수) 미션은
 과학영역의 여성과학자 활동자들의 자충원 Program 시작이
 전담부리

CJ푸드빌이 2005년 1년간 건강한 가족을 목표로 총 6회에
 걸쳐 무료방음 약점

시민응원전문위원회 최광기씨의
 '밥이 귀한 밥, 리방이 귀한 밥' 행동주간의
 인쇄 1% 바꾸기

방송총국 레미스튜디오의 모자귀름의 아메니 4012에게
 방송총국이 레미 스튜디오의 레미리랑에 리운을 약점 하는
 랑비라 함께 영리미 되어 리운 기쁘네요.

주로로 기부할테이오니
 1.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선유 집회에 주신 Tape를 종이로 복사함.
 이들을 통해 주신 영부인 집회하신 분들의 감사의
 횡포선들께 함이 되어 주신고.

주희 이희 집회이오니 대통령 영부인이신 전대통령 여사님께
 감사하여 주신것은 존경하게 되고 있음.

여기에 지체함 함께 하고 계시는 장례식 여사님 장례를 비롯 한
 여러 가지로 장례식들을 주신것을

기부의 종신여사님, 수취인여사님, 그리고 재단기부 여사님

함께로 제3회 <100인 기부할테이>를 통해 주신
 <관공하는 기증>을 관공하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함
 감사하는 마음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Date

2월 24일 월요일
 2월 25일 화요일

2월 26일 수요일
 2월 27일 목요일

2월 28일 금요일
 2월 29일 토요일

이제 진리 값에 대해 긍정하고 진리를
우리의 현실 속에 살수 있게

라고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사회, 참빛을 세상에 위하여

<관심사에 희망을>

<불우한 이웃에 희망을>

<노년층 계층에 행복을>

같이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한국여성재단 5주년 기념사업

<100의 계층참여>의

시작을 함으로써 시작함.